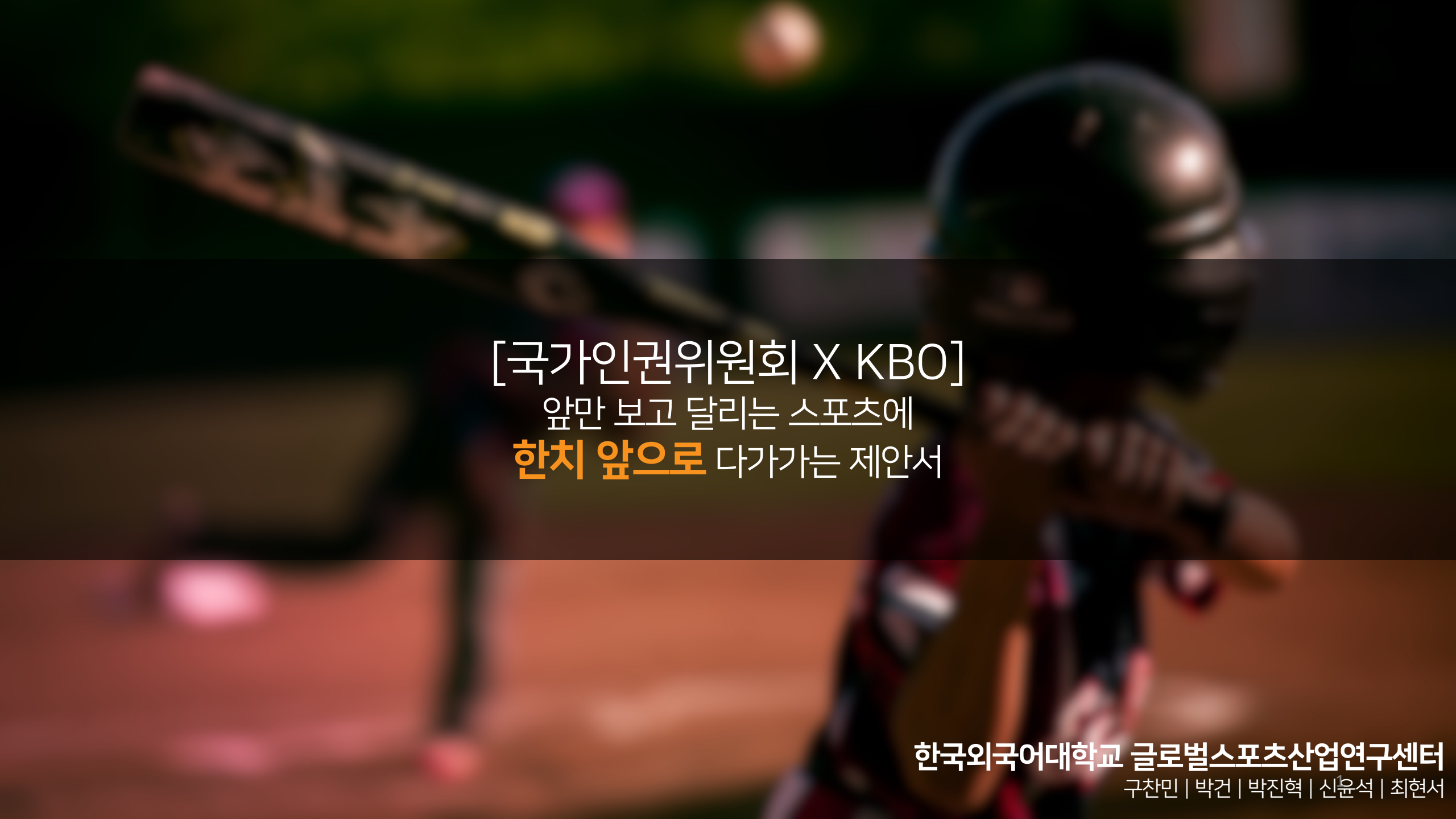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X KBO]

앞만 보고 달리는 스포츠에  
**한치 앞으로** 다가가는 제안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스포츠산업연구센터

구찬민 | 박건 | 박진혁 | 신윤석 | 최현서

# Cover Letter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에 설립되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비전과 모든 사람의 존엄, 평등, 자유가 보장되는 인권 사회 실현이라는 미션 아래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비단 포괄적인 개념의 인권뿐만 아니라 체육과 관련된 인권 또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한국야구위원회 (이하 KBO)와의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KBO는 KBO 리그 관리, 통괄을 비롯해, 아마추어 야구의 발전을 위한 제반 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등 대한민국 야구계의 대표적인 비영리단체입니다. 또한, 과거 문제로 제기됐던 승부 조작으로 대표되는 경기의 공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 클린베이스볼 센터를 설립,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스탠스의 스포츠 운영 기구입니다.

야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스포츠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TV, 인터넷, 모바일 앱 등 다양한 프로야구 중계 플랫폼이 있어 시청 접근성도 낮고,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 중 여가 문화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와 미디어의 상호작용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산출하고, 야구를 향유하는 비중이 큰 20~30대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은 이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인권과 스포츠의 관계성의 의문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 파트너십 제안서를 통해 사람들의 의문에 해답을 제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KBO와 함께 나아가며 승승의 가치를 만드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제안합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KBO리그를 총괄하는 기구로,  
대한민국에서 **프로야구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기구**입니다.

## Profile

1981년 12월 11일에 열린 한국프로야구위원회 (KPBC) 창립총회가 전신이며,  
1982년 1월 15일 첫 구단주 회의에서 한국야구위원회 (KBO) 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KBO 리그 관리 및 통괄, 야구 경기 기록, 관련 자료의 수집과 조사 및 분석, 국제 야구 활동 교류 추진  
아마추어 야구의 발전을 위한 제반 지원 활동, TV 및 라디오 방송중계권 계약 활동, 야구 기술의 개발 및 지도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한국 야구의 실질적인 대표 단체로 자리잡았습니다.

## Vision

KBO 리그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 모습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의 중심, KBO 리그**

한국야구위원회는 야구가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창출해낼 **그 이상의 가치**를 바라봅니다.

## Core Value

KBO 리그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 PASSION

신나는 야구, 흥과  
감동의 가치로 담아내는  
강렬한 팬들의 열정

### ENGAGE

매일 일상 생활 속에서  
함께하며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는 교감의 매개체

### PROGRESS

야구를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신선한 기대감

한국야구위원회는 야구가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창출해낼 **그 이상의 가치**를 바라봅니다.

## Brand Concept

리그 브랜드 가치를 관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방향

# Creating Movement Beyond Baseball

**Movement** 는 리그 핵심 가치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KBO 브랜드가 추구할 끊임없는 도전과 진화, 감동을 의미합니다.

**Beyond Baseball** 은 언제 어디서든 즐기고 교감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  
컨텐츠로서 야구를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향한 쉼 없는 성장을 염원함을 의미합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야구가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창출해낼 **그 이상의 가치**를 바라봅니다.

## Catchphrase

리그 브랜드 가치를 관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방향

**SLIDING TO** 라이프스타일의 중심, KBO 리그  
**YOUR LIFE**

**Sliding** 은 도전과 승부, 짜릿함이 공존하는 슬라이딩의 의미를 담아 한국야구의 역동성을 시각화한 리그 엠블럼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야구 그 이상을 향해 팬들의 삶 속에 열정적으로 다가갏다는 의지를 전달합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야구를 통한 리그의 사랑 나눔 실천**을 위하여  
각 구단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_KBO 공식 홈페이지

#B TOGETHER 119

#KBO X 대한적십자사

사랑의 골든글러브상

호국보훈

지난 2012년부터 **한국야구위원회와 대한적십자사는 협력 관계를 맺고** 각 구단 홍보대사를 선정,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해 '야구를 통한 사랑 나눔'에 앞장서고있습니다.

## KBO X 대한적십자사



이 캠페인은 KBO와 대한적십자사가 함께합니다

이미지 출처\_KBO 공식 홈페이지

### Dream Save

'세이브가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지킨다' 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KBO 정규시즌 (후반기) 에서 1세이브가 나올 때마다 20만원의 기부금을 적립하여 일정한 목표액이 달성되면 대한적십자사에서 선정한 사회 및 의료 취약 계층 어린이들에게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난 2012년부터 **한국야구위원회와 대한적십자사는 협력 관계를 맺고** 각 구단 홍보대사를 선정,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해 '야구를 통한 사랑 나눔'에 앞장서고있습니다.

## ■ KBO X 대한적십자사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한국야구위원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야하는가?

이 캠페인은 KBO와 대한적십자사가 함께합니다

### Dream Save

이 캠페인은 야구팬들이 야구 경기 관람 시 구단에서 제공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KBO 정규시즌 (후반기) 에서 1세이브가 나올 때마다 20만원의 기부금을 적립하여 일정한 목표액이 달성되면 대한적십자사에서 선정한 사회 및 의료 취약 계층 어린이들에게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KBO 리그는 국내에서 **평균 관중 수가 가장 많은 프로스포츠 리그**로,  
마케팅 관점에서 타겟의 범위가 가장 넓은 소재입니다.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야구      | 6,754,619  | 7,662,495  | 8,631,829  | 8,713,420  | 8,400,502  | 7,535,075  | 424,399   | 1,416,061 |
| 축구      | 2,084,768  | 2,150,416  | 2,139,826  | 1,913,164  | 1,570,628  | 2,376,923  | 114,412   | 572,276   |
| 농구(남)   | 1,303,988  | 1,163,557  | 1,030,846  | 927,844    | 848,395    | 873,782    | 46,307    | 110,235   |
| 농구(여)   | 139,201    | 167,606    | 158,607    | 124,306    | 123,000    | 122,055    | 92,547    | 4,037     |
| 배구(남,여) | 416,288    | 498,421    | 507,479    | 520,768    | 517,674    | 580,448    | 393,069   | 26,709    |
| 합계      | 10,718,864 | 11,602,495 | 12,468,587 | 12,199,502 | 11,460,199 | 11,488,283 | 1,070,724 | 2,129,318 |

출처\_문화체육관광부 (프로스포츠 경기 단체 자료)

허나, KBO 리그 내에서는 **많은 인권 침해 사례와 비윤리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인권위 "롯데자이언츠 구단 CCTV 선수 감시는 인권침해"

[뉴시스] 입력 2015-03-11 12:52



이영하, 김대현 학교폭력 의혹



경찰, 승부 조작 혐의로 삼성 윤성환 구속 영장 신청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계의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출처\_스포츠인권선서 공식 홈페이지

2019년, 빙상계의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폭행, 강제추행, 강간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후 유도, 양궁, 여자축구, 세팍타크로, 농구 등에서 미투운동이 일어났고, 체육계 곳곳에서 과거 성 추문이 폭로됨.

2019년, 스포츠 분야의 인권 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라는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폭력, 성폭력 등 스포츠계 인권침해 피해 구제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계의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출처\_국가인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스포츠 인권 현장' 을 발간하고 '스포츠 인권 정책 비대면 심포지엄' 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계의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 인권위-KBL, 인권주간 캠페인 실시

-인종혐오와 차별에 맞서고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프로농구 만들기 캠페인-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KBL(총재 이정대)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10.)을 맞아 12.7부터 12.13까지 ‘인종혐오와 차별에 맞서고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프로농구’ 캠페인을 진행한다.

출처\_국가인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이번 캠페인에서 인권위는 혐오표현과 스포츠 인권에 대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KBL은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면서 ‘스포츠인권선서’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프로농구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www.kbl.or.kr)을 통해 캠페인이 진행된다.
- 인권위는 이번 KBL과 함께하는 캠페인이 선수, 구단 관계자를 비롯한 KBL 공동체와 관중 등 프로농구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KBL과 협업해 '**인권주간 캠페인**'을 실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KBL과 함께하는 캠페인이 선수, 구단 관계자를 비롯한 KBL 공동체와 관중 등 프로농구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포츠계에서는 **인권 관련, 비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야구 입장권 판매 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하라”

✎ 정두리 기자 | ⌚ 입력 2022.01.28 13:46 | 💬 댓글 0



NC 다이노스 원정숙소 방역수칙 위반 사건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 사태

스포츠계의 인권 침해 **문제와 국민 사이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출처\_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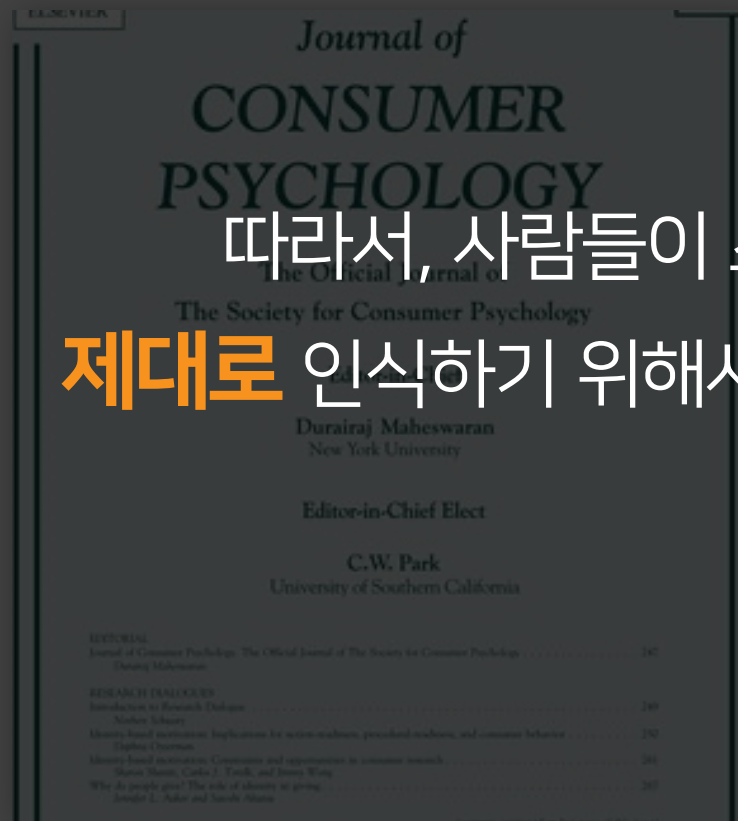
### 심리적 거리 해석 수준 이론

사람들은 동일한 정보나 상품임에도 심리적 거리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발생 확률적) 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고 주장.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구체적으로 느끼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욱 추상적으로 느끼게 되는 현상

**특히, 해석 수준과 동기 수준 혹은 메시지에서 강조하는 속성이 매칭되었을 때** 개인적 구매 행동뿐만 아닌 친사회적 소비를 지향하도록 이끌기도 한다.

스포츠계의 인권 침해 **문제와 국민 사이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문제 사이 거리를 좁혀야한다.

### 심리적 거리 해석 수준 이론

사람들은 동일한 정보나 상품임에도 심리적 거리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발생 확률적)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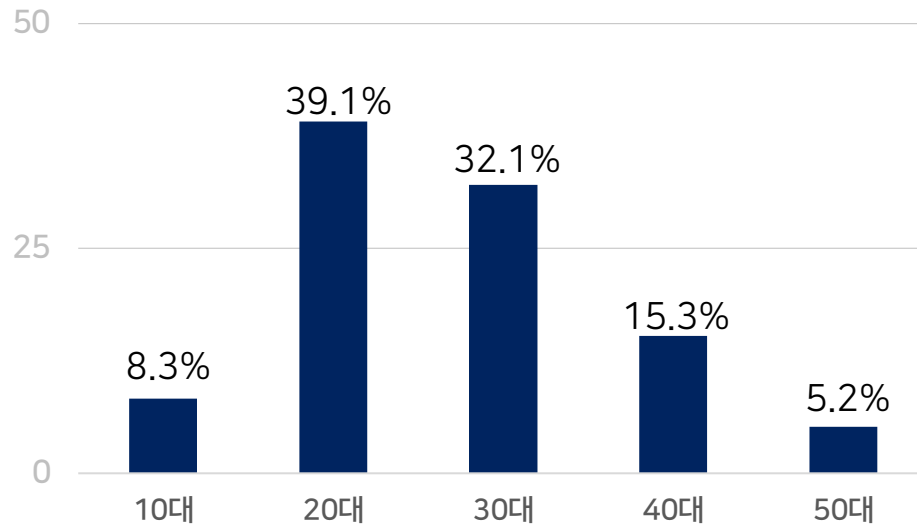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구체적으로 느끼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욱 추상적으로 느끼게 되는 현상

**특히, 해석 수준과 동기 수준 혹은 메시지에서 강조하는 속성이 매칭되었을 때** 개인적 구매 행동뿐만 아닌 친사회적 소비를 지향하도록 이끌기도 한다.

출처\_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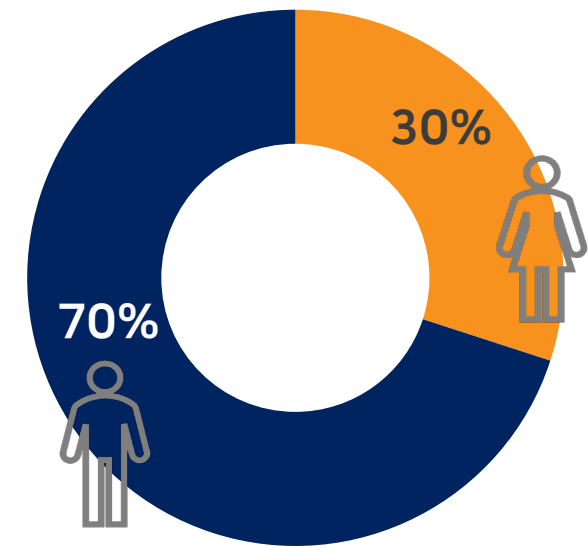
**2030세대**는 KBO 리그의 주 소비층이자, 인권 활동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큰 세대입니다.

연령별 검색



출처\_네이버, 16.03.01 ~ 16.03.31 (조사시간, 모바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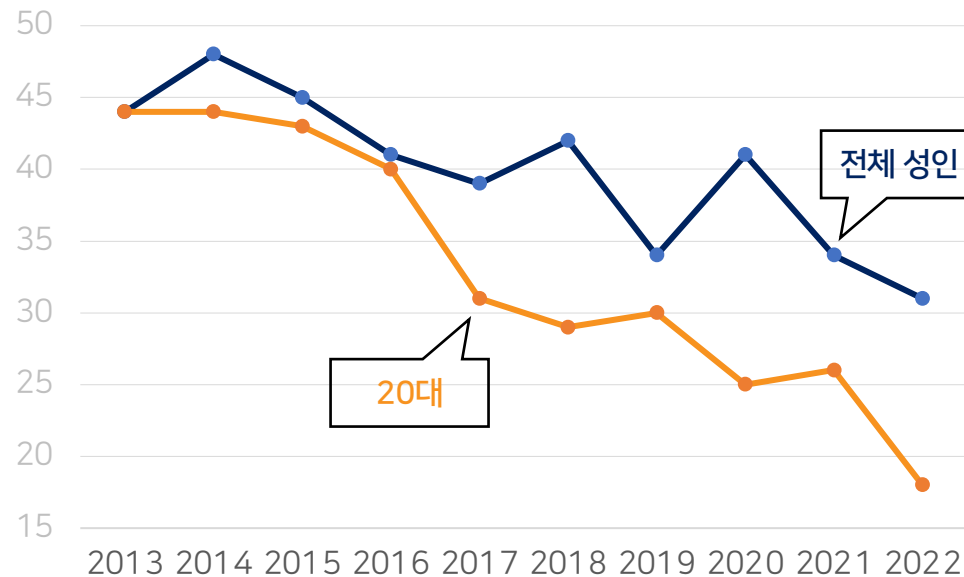
남녀 검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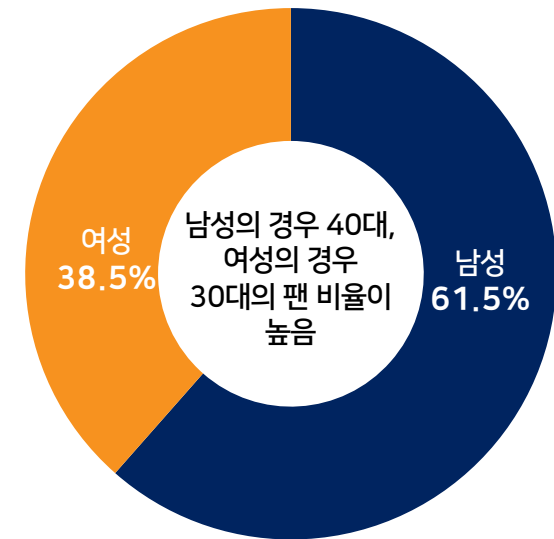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자료에서 20대 연령 층의 KBO 리그 관심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최근 10년간 18세 이상 성인 프로야구 관심도

단위: %, 관심도는 '많이 관심 있다'와 '약간 관심 있다'를 합한 수치



### 프로야구 팬 성/연령 특성



전체 연령 층으로 보아도 2-30대 남성과 여성은 각각 22% 정도로,  
현재 2030 세대가 프로야구 전체 팬 비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계의 인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 애써왔습니다.

한편, 야구계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인권 관련 문제, 그리고 비윤리적인 사건들은 젊은 팬들이 야구를 외면하고, 신규 팬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위와 KBO가 본 파트너십을 통해 20·30세대가 느끼는 **스포츠와 인권 활동의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고, 국내 제일의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가 건전한 이미지를 되찾는**, 함께 나아가며 승승의 가치를 만드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제안합니다.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스포츠를 활용한 캠페인은 인권의 가치가 여러 방면에서 훼손되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다른 스포츠 협회는 어떤 식으로 **인권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까요?

### K리그 클린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리그 클린센터는 승부조작 및 부정행위 등의 전체 구성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들의 자발적 윤리 준수를 위해 K LEAGUE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리그 클린센터는 신고 내용에 따라 총 3가지로 나누어 운영되며,  
K리그 산하 유소년 팀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비위 행위와 부적절한 요구, 스포츠 인권/윤리에 대해 신고를 받아 상담이 진행됩니다.

K리그 클린 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후, 답변 드립니다.  
아울러, 신고내용 및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방법/진행절차

- 1) 신고방법 : 신고 내용별 (하단 신고하기 참조)
- 2) 신고내용 : 승부조작, 부정방지, 스포츠 인권, 선수 권익 등
- 3) 진행절차 : 신고접수 → 내용 확인 → 추가 조사/조치 → 결과 회신

#### 신고하기

|                                                                                                     |                                       |
|-----------------------------------------------------------------------------------------------------|---------------------------------------|
| 1) 승부조작, 부정방지<br>스포츠 인권/윤리(폭력, 차별 등)                                                                | 2) 선수 권익 (계약, 부당대우 등)<br>(프로, 유소년 선수) |
| <p>- 연락처 : 02-2002-0691</p> <p>- 이메일 : <a href="mailto:clean@kleague.com">clean@kleague.com</a></p> |                                       |

출처\_K리그 공식 홈페이지

구단에서 발생했던 코칭 스태프의 선수 폭행과 관련해

선수의 인권 보호와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해

**'K리그 클린센터'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맹은 클린센터의 접수 범위를 더욱 확대해 선수를

포함한 K리그 구성원의 인권 보호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특히,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웠던 폭력

등 인권 침해에서의 **피해자 권리 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게끔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스포츠 협회는 어떤 식으로 **인권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까요?



출처\_중앙일보

KBL은 2020년 1월, KBL에서 뛰고 있는 흑인 선수들이 한국 팬들에게 인종차별을 심하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KBL은 지난 1월에 일어난 인종차별 피해 사례를 수집했으며 이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차별 금지 캠페인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뒤, KBL은 인권위와 인권 주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스포츠 협회는 어떤 식으로 **인권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까요?



출처\_MK스포츠

한국배구연맹은 제 15회 KOVO컵 대회를 통해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브브브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전 수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선수 고유민이 2020년 7월 28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브브브’는 ‘Volleyball Block Violence’에서 앞글자를 따 “배구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막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캠페인 포즈를 취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챌린지 형식으로 팬들도 선수 인권 보호 필요성을 느끼게 유도했습니다.

또, 체육계는 어떤 식으로 **인권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까요?



인권 중에서도 스포츠 참여권 제고를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써 **'홍보대사 위촉'**을 꼽을 수 있음.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스포츠 모델을 세움으로 이벤트에 자연스러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함

또, 체육계는 어떤 식으로 **인권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까요?



SBS 해설위원으로 카타르 땅을 밟는 이승우가 악플 자제와

응원 유도를 위한 SNS 캠페인에 참여함. 국제축구연맹(FIFA)과

국제프로축구선수협회(FIFPro) 역시 이번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선수들을 소셜 미디어상**

**차별·비방·모욕으로부터 보호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선수 또는 팀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악플'이 달리면 이를 고발하는  
형태다.

또, 체육계는 어떤 식으로 **인권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까요?



2019년,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로서 스포츠 혁신 위원회**가 출범. 스포츠 혁신 위원회는 스포츠 인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인권교육 및 홍보 등 기존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발표.

또, 체육계는 어떤 식으로 **인권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까요?



본 이미지는 청소년들이 직접 대회를 기획하고 꾸려 나간 성북구 e스포츠 대회 현장. **이를 레퍼런스로 청소년의 의견 반영을 통해 대회 기획 및 운영에 더 관심을 갖게 함과 동시에 대회 컨셉을 '스포츠 인권'으로 선정**하여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참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고양하는 캠페인 진행.

그렇다면, 해외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권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까요?

hummel  
@hummel1923

This shirt carries with it a message.

We don't wish to be visible during a tournament that has cost thousands of people their lives.

We support the Danish national team all the way, but that isn't the same as supporting Qatar as a host nation.



출처\_험멜 공식 SNS

지난 9월, 2022 FIFA 월드컵에 출전하는 덴마크가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톤 다운된 유니폼에는 조용한 저항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험멜은 카타르에서 **경기장 건설에 동원됐다가 목숨을 잃은 이주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카타르의 인권 문제에 항의하기 위한 유니폼**을 제작했습니다. 이 유니폼은 가슴 양쪽에 새겨진 덴마크 축구협회와 험멜의 로고가 같은 색으로 처리돼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권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까요?



출처\_험멜 공식 SNS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FIFA는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적힌 셔츠를 입고 훈련하겠다는 덴마크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트레이닝 킷에 “Human Right for all”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지만**, FIFA는 선수가 사용하는 장비에 정치적, 종교적 의미를 내포한 문구나 이미지가 담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FIFA는 축구에 집중하고 스포츠가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권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까요?



출처\_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

성별과 민족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과 잠재적 직원을 공정하게 대우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우고,  
**인권 침해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격히 관리-통제**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에 맞서 프리미어리그는 다음과 같은 방안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팬들에게 인종차별이 일어나는 곳마다 도전하고 보고할 것을 촉구하고 축구와 더 넓은 사회의 행동 변화를 장려하기 위한 No Room For Racism 캠페인을 통해 인종차별과 맞서기 위한 리그와 클럽의 연중 약속을 강조하며 축구의 모든 영역에 걸쳐 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촉진
2.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어리그 커뮤니티 프로그램 내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팬 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인종 차별 피해를 입은 선수, 감독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 접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함
4. 클럽, Kick it out, FA, PFA, 경찰 및 기타 당국과 협력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징계 및 법적 조치가 사건 처리에 효과적임을 보장하는, 프리미어의 지속적인 약속

## 인권 보호 캠페인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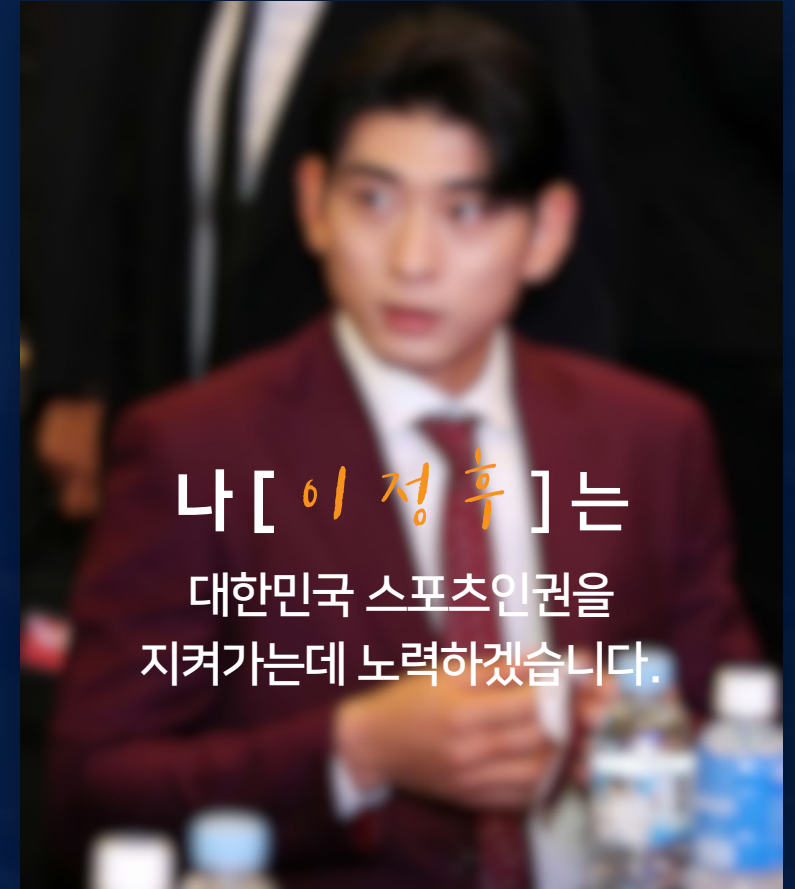
‘인권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의 지속적인 화면 노출을 통해 전달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 때, 캠페인은 하나의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KBO 스타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 KBO 팬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 인권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캠페인 제작 사례



### 가이드라인



### 03\_오프라인 이벤트\_인지를 위한 두번째 걸음

## 포스트 시즌 서브 스폰서

FC 바르셀로나는 2006년부터 유니세프와 협약을 맺고 클럽 연간 수입의 0.7%를 기부해왔습니다.

이는 바르셀로나의 전통과 사회적 공헌, 수익 창출을 감안한 교육지책이자 타협책이었습니다.

FC 바르셀로나와 유니세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며 스포츠와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며, 스포츠와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KBO 포스트시즌 서브 스폰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98년 KBO 포스트 시즌, 최초로 현대자동차가 스폰서십을 시작한 이래로, 포스트 시즌은 평균 4%의 시청률대와 대부분의 좌석이 매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기가 많은 포스트 시즌 서브 스폰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홍보하기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 가이드라인



## HR Zone

야구에서 HR은 Home Run의 약자입니다.

인권은 영어로 Human Right며, 약자로 HR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언어유희를 통해 인권과 관련된 이벤트 개최를 제안합니다.

22시즌, 기아자동차는 기아 타이거즈와 협업해 우측 잔디석에 일명 '기아 홈런존' 을 운영하여 바운드 없이 홈런존 차량 및 구조물을 맞히는 선수에게 전시 차량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레퍼런스로, HR 존으로 홈런을 친 선수들을 시즌동안 기록하고,  
**가장 많이 HR 존으로 공을 보낸 선수에겐 골든 글러브  
번외 시상을 진행**합니다.

'HR 골든 글러브 (약칭)' 도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함께 진행되고,  
트로피도 수여됩니다.

### 참고 이미지



### 03\_오프라인 이벤트\_인지를 위한 네번째 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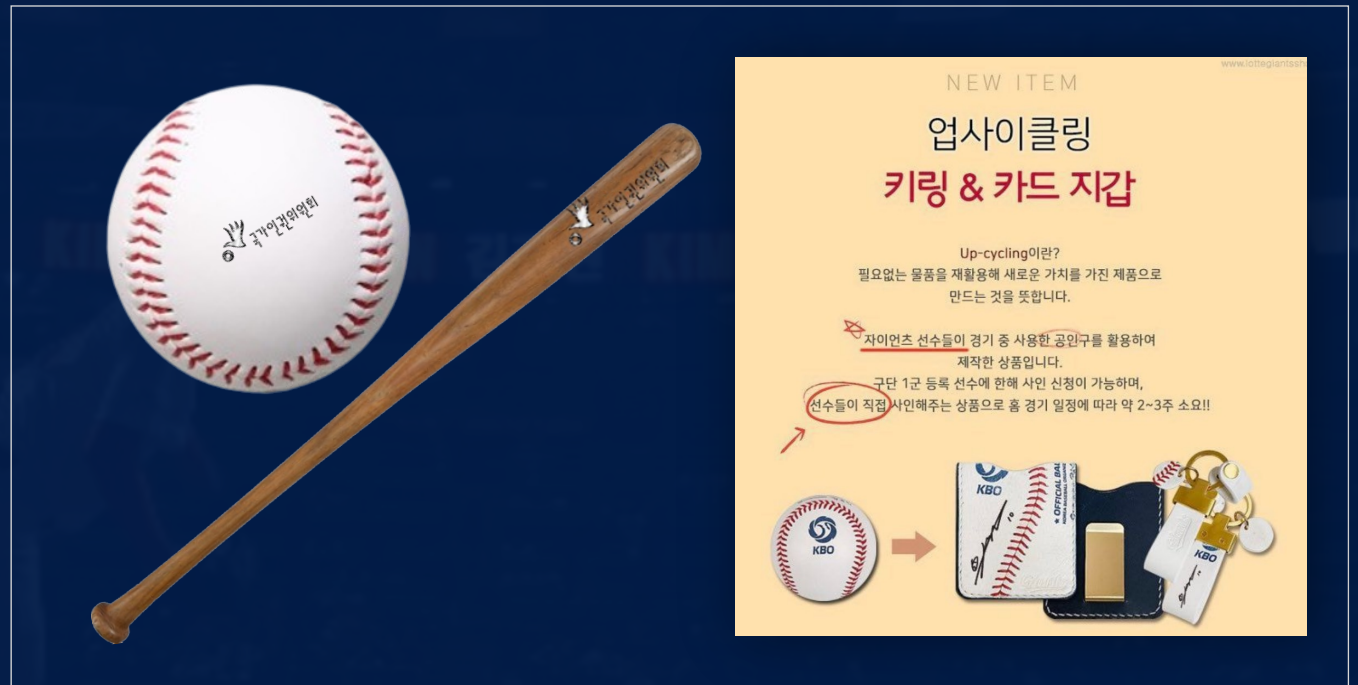
# Little Project

KBO는 2022년 창단 40주년을 맞아 '팬 퍼스트'를 강조하는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그중 매월 마지막 일요일 경기를 '어린이 팬 데이'로 지정하여 홈 구단 어린이 팬이 시구, 원정 구단 어린이 팬이 시타자로 참여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린이 팬 데이 사업을 기반, 어린이 팬이 시구하는 야구공과 야구 배트에 '국가인권위원회' 로고를 새겨넣어 **인권이라는 개념을 간접적으로 어린이 팬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유도합니다.**

리틀 프로젝트 이후 사용된 인권회 로고가 삽입된 야구공, 배트는 카드 지갑, 손가락 등으로 재활용하여 시구, 시타에 참여했던 아이들에게 KBO X 인권회 로고가 각인된 물건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가이드라인



03\_오프라인 이벤트\_체험을 위한 첫 걸음

## Clenched Fist Time

공수교대 시간 사이에는 각각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른바 '키스타임' 으로 명칭된 키스캠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공수교대 이벤트를 통해 직관온 관객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심어주고  
동시에 구단의 홍보를 비롯한 마케팅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우리는 공수교대 이벤트의 이러한 성격을 이용해 스포츠  
인권을 위한 공수교대 이벤트 캠페인을 개최하는 걸 제안합니다.

### 가이드라인



CF Time은 "Clenched Fist" 의 준말로,  
연대의 상징을 의미하는 불끈 쥔 주먹의 영어 약자  
이 때 **불끈 쥔 주먹은 인권을 상징하는 제스처 중 하나**

새로운 공수교대 타임 이벤트로 CF 타임을 진행하고,  
장내 아나운서, 혹은 응원단장이 본 캠페인과 제스처를  
설명한 뒤 '키스타임' 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CF 타임을 통해 **대중들에게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의미와  
관심을 응원 문화에 접목**시켜 대중과 인권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

### 03\_온라인 이벤트\_확산을 위한 첫 걸음

## Close to you!

신촌, 홍대, 연남동 등 젊은 연령층이 자주 찾는 거리에  
**국가인권위원회 X KBO의 MD 팝업 스토어**를 열어 20대 KBO  
소비자에게 다가갑니다. 품목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팝업 스토어 내에서 전달하는 인권 퀴즈 시트를 풀어야 합니다.

퀴즈에는 이어질 이벤트인 **HBD, Human Right!**의 날짜를  
암시하는 12월 10일의 의미를 물어보고, 정답을 알려주며  
임의로 지정한 “인권기념일”을 알립니다. 이때, 추가로 몇 개의  
다른 인권 관련 퀴즈를 포함합니다.

판매 상품에는 리사이클링 제품으로 구성하여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KBO의 파트너십을 알리고,  
인권 퀴즈를 통해 관심을 고취합니다.

### 가이드라인



### 03\_온라인 이벤트\_확산을 위한 두번째 걸음

# HBD, Human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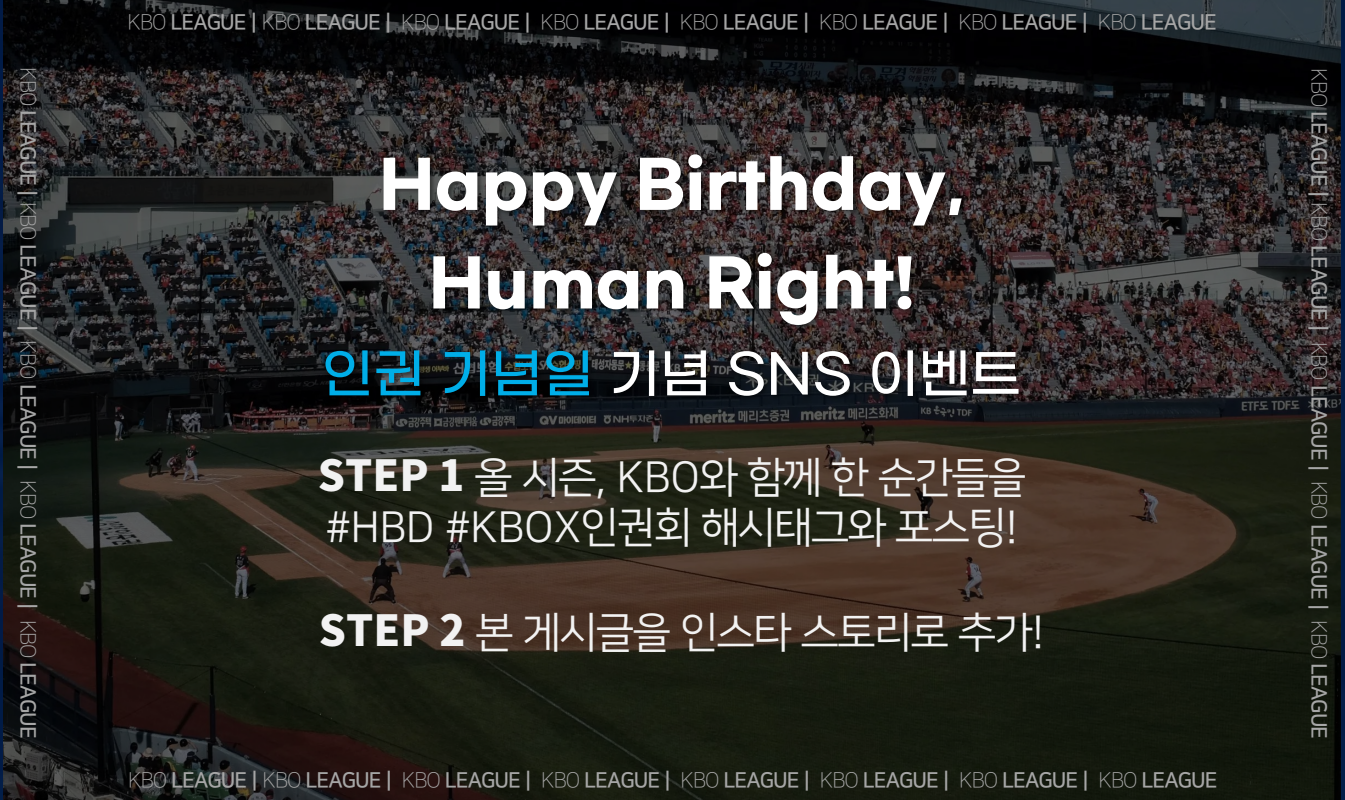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문이 발표된 것을 기념하고, 세계 인권 선언 제 24조의 '휴식과 여가의 권리' 에서 착안됐습니다.

본 이벤트는 **골든 글러브 시상식이 열릴쯤인 12월 10일을 인권 기념일로 지정,**

한 시즌동안 야구 직관했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HBD 해시태그와 함께 포스팅하고, KBO 공식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될 'HBD, Human Right!' 게시글을 리그램합니다.

#HBD 해시태그는 무려 1,364만개의 포스팅이 있어 본 이벤트에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스며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KBO의 포스팅을 리그램하여 KBO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지않은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



**Happy Birthday,  
Human Right!**

**인권 기념일 기념 SNS 이벤트**

**STEP 1** 올 시즌, KBO와 함께 한 순간들을  
#HBD #KBOX인권회 해시태그와 포스팅!

**STEP 2** 본 게시글을 인스타 스토리로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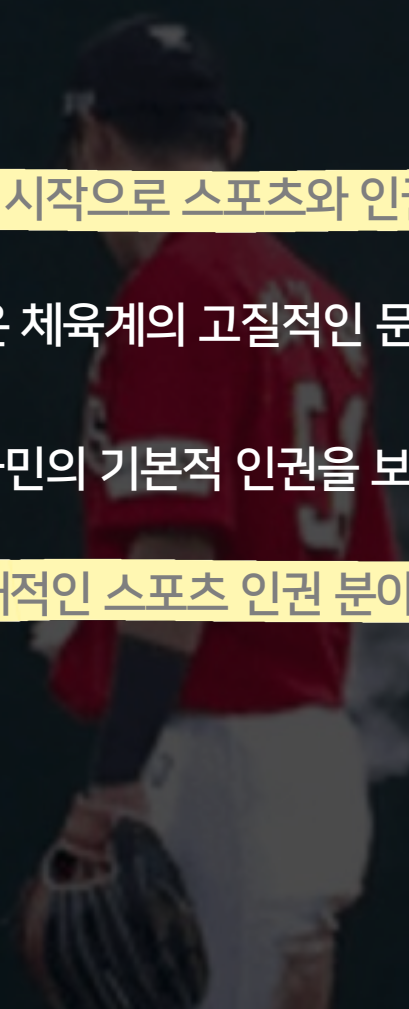
♡ 💬 📍

9channy님 외 여러 명이 좋아합니다

kbo.official [KBOX인권회 인권 기념일 기념 이벤트]

더 보기

1. KBO의 윤리적 경영 토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돌아온 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헌을 인식하여 800만명에 달하는 대중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이미지 강화 및 공유 가능
2. KBO의 기업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차후 타 스포츠 관련 기관과의 파트너십 체결 과정에서 KBO의 사례를 근거로 신뢰를 보증하고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음
3. 스포츠인들에게 윤리 의식을 내재화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스포츠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다른 분야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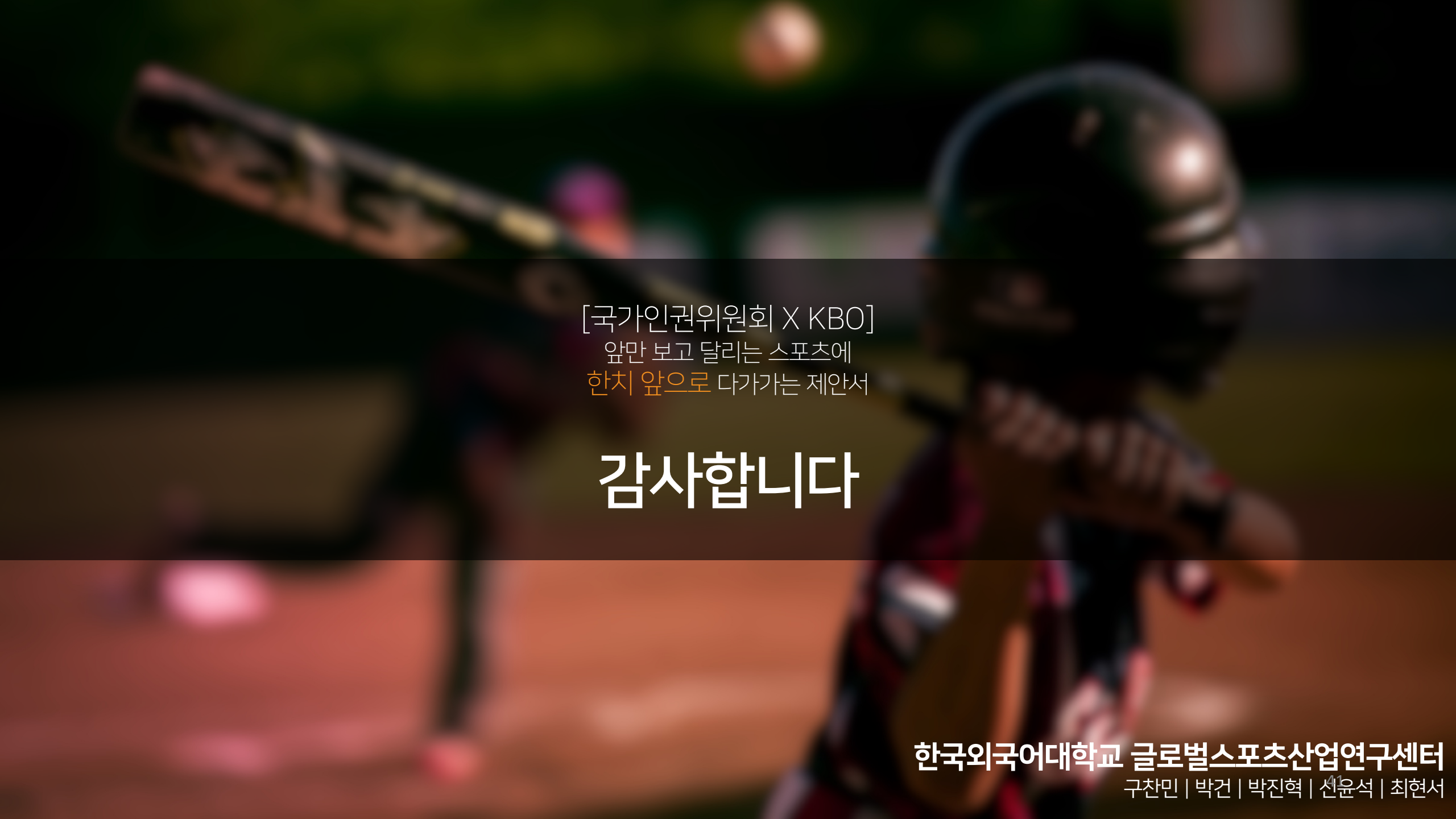


4. 협업을 시작으로 스포츠와 인권 사이의 거리를 좁히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폭력, 불법

청탁과 같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의 공론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5.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하는 사명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에서 진입 장벽이

높았던 폐쇄적인 스포츠 인권 분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국가인권위원회 X KBO]  
앞만 보고 달리는 스포츠에  
한치 앞으로 다가가는 제안서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스포츠산업연구센터  
구찬민 | 박건 | 박진혁 | 선윤석 | 최현서